

유권자의 기본적인 심리적 특성들과 정치적 태도, 후보 선택에 관한 경로모형 연구*

김 현 정 박 영 옥 박 상 희†
충북대학교

흔히 진보와 보수로 일컫는 정치적 태도는 선거에서 지지 후보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최근에는 개인의 기본적인 심리적 특성들이 정치적 태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인의 내적 심리 요인들 중 기본적인 개인 가치, 도덕성 기반, 성격 특질(성실성, 친화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정치적 태도의 형성에, 그리고 그를 통해 선거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이에 대한 경로 모형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제18대 대선에서 보수와 진보 후보 지지자들의 심리적 특성들을 측정, 비교하였다. 300명(여성 152명)의 참가자들이 각 지역의 인구 비율에 맞추어 모집되었으며 2012년 12월 19일 대선 직전 인터넷을 통해 설문에 참가하였다. 정치적 태도의 측정을 위해 진보와 보수의 일차원적 개념 이외에도 한국 사회의 특수한 이념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정치 사안들에 대한 입장과 체제정당화 등의 다각화된 변인들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의 내적 요인인 기본적인 개인 가치 10차원 중 권력, 안전, 성취, 전통의 차원에서 각 후보 지지자들 간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정치적 태도인 이념적 성향, 북한변화요구/북한지원, 경제성장/소득분배, 경제성장/환경보호, 체제정당화에서도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최종적으로 기본적인 개인 가치가 정치적 태도를 통해 정치적 판단으로 이어지는 매개 효과들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정치적 판단에 관련된 심리적 특성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밝힐 수 있었다.

주요어 : 정치적 태도, 후보 선택, 심리적 특성, 선거, 기본적인 개인 가치

* 이 논문은 2013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박상희,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28644) 충북 청주시 흥덕구 충대로 1

Tel: 043-261-2192, E-mail: sangheepark@chungbuk.ac.kr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후보들은 어떤 심리적 과정을 거쳐 선택되는가? 대통령 선거에서의 투표와 같은 정치적 판단을 결정하는 요인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후보의 개인적 매력, 후보와 본인 간의 유사성 등, Krosnick, Visser, & Harder, 2010),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이 가정되었을 때 그 중 결정적인 요인은 유권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태도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정치적인 태도들은 어떤 선행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고 어떤 내용을 가지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인 선택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심리적 특성들, 즉 기본적인 가치관이나 도덕적인 판단 기준, 성격과 같은 변인들에 의해 어떻게 예측되는지를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18대 대통령 선거라는 구체적인 정치적 맥락에서, 정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심리적인 특성들이 정치적인 이슈들에 대한 입장을 통해서 선거에서의 선택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정치 맥락에서의 태도의 특성

최근의 사회 및 정치심리학 연구들은 정치적인 태도가 논리적인 사고과정의 결과물이라기 보다는 개인의 보다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심리적 특성들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는 여러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예: Barbaranelli, Caprara, Vecchione, & Fraley, 2007; Barnea & Schwartz, 1998; Graham et al., 2011; Jost, Glaser, Kruglanski, & Sulloway, 2003). 이와 같은 일련의 심리적 특성들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이 변인들은 그 자체로서는 정치적인 맥락에 직접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인 요인들보다 정치적인 태도와 판단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aprara와 Zimbardo(2004)는 이러한 현상을

‘정치의 개인화(Personalization of politics)’라고 불렀다. 정치적 태도가 이처럼 개인의 근본적인 사고 특성의 영향을 받는다면, 유권자의 구체적인 정치적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투표 행동에 영향을 주려는 정치인들의 전략은 기대만큼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리적 특성들이 정치적 태도의 여러 측면들을 통해 정치적 판단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검토하여 어떤 변인들끼리 서로 관련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개인차 변인들이 정치 행동으로 발현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심리적 변인들 중에 정치적 사고와 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본적 개인 가치(Schwartz, 1992), 도덕성 기반(Graham, Haidt, & Nosek, 2009), 5요인 성격 특질(Jost, Nosek, & Gosling, 2008)의 세 가지 변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이 심리적 특성들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정치적 판단과 관련된 심리적 특성들

기본적 개인 가치(Basic Personal Values)

Schwartz(1992)는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 차원들에 관한 Rokeach(1973)의 초기 연구와 사회학, 인류학 등에서의 연구들에 기초하여 기본적 인간 가치 이론(Theory of Basic Human Values)을 제시하였다. 그는 가치를 바람직한 최종 상태 또는 행동 양식에 대한 신념으로서 구체적인 상황을 초월하고, 행동, 인물들, 사건들의 선택과 평가에 방향을 제시하며, 가치들 서로 간의 상대적인 중요성에 의해 우선순위의 체계를 이루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Schwartz는 보편적 가치(universal values)로서 권력(power), 성취(achievement), 쾌락주의(hedonism), 자극(stimulation), 자율(self-direction), 보편주의(universalism), 박애(benevolence), 전통(tradition), 동조(conformity), 안전

(security)의 열 가지 차원들을 제시하였다. 이 가치들은 서로 무관한 것들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change) 대 보수(conservation), 그리고 자기초월(self-transcendence) 대 자기고양(self-enhancement)의 두 가지 상위 요인으로 정의되는 2차원 상에 존재하는 것들로서, 서로 인접해 있는 가치들끼리는 양의 상관관계가, 반대쪽의 4분면에 위치한 가치들끼리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개념화되었다. 예를 들어 보편주의와 박애(자기초월 가치에 해당)는 성취, 권력(자기고양 가치에 해당)과 상반되는 가치인 것으로, 동조, 전통, 안전(보수 가치에 해당)은 자극, 자율, 쾌락주의(변화에 대한 개방성 가치에 해당)와 서로 상반된 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Schwartz, 1992, 그림 2). 이에 더해 Schwartz(2006)는 이 가치 체계의 보편성을 살펴보았는데, 44개의 국가에서 열 개의 요인들의 내용과 대략적인 구조를 확인하였다. 국내에서는 김연신과 최한나(2009)가 Schwartz의 열 가지 차원들이 대체적으로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서지영과 정영숙(2012)은 초,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가치 차원의 수와 선호도에 있어서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Schwartz와 동료들은 이후 기본적인 개인 가치들의 추구가 구체적인 정치적 사안에 대한 태도의 형태로 발현이 되고, 이는 다시 정치적 판단을 결정한다는 모형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제시하였다. Piurko, Schwartz, & Davidov(2011)는 서로 다른 정치적 역사를 지닌 유럽의 20개 국가에서 기본적인 개인 가치들이 정치적인 좌와 우의 개념을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비교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좌파적 성향은 박애와 보편주의, 우파적 성향은 동조와 전통에 의해 설명되는데 각 가치들의 설명력의 크기는 국가의 정치 체제의 성향, 즉 자유주의 국가인지 탈 공산주의 국가인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Caprara, Schwartz, Capanna, Vecchione, & Barbaranelli(2006)는 이탈리아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열 개의 가치들이 성격의 5요인 특질들에 비해 정치적

선택을 더 잘 예측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Schwartz, Caprara, & Vecchione(2010) 또한 인과 모형을 통해 이탈리아의 정치적 맥락에서 기본적인 개인 가치들이 구체적인 정치적 문제들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고 이러한 결정이 다시 선거에서의 투표 행동을 예측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개인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가치들은 세상에 대한 해석의 틀을 형성하고 이 틀이 정치적 사고와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덕성 기반(Moral Foundations)

정치적 사고와 관련된 기본적인 심리 특성 중에 도덕성 기반으로 불리는 것이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다. Haidt와 동료들(Graham et al., 2009)은 여러 철학적 관점들과 선행 연구,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도덕적인 판단을 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들을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도덕성 기반이라고 명명된 이 다섯 가지 기준들은 위해/돌봄(harm/care), 공평/상호성(fairness/reciprocity), 내집단/충성(ingroup/loyalty), 권위/존경(authority/respect), 순수성/신성함(purity/sanctity)이다. Haidt에 따르면 위해/돌봄과 공평/상호성은 ‘개인화 기반들(individualizing foundations)’, 즉 개인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보고하는 것과 관계된 도덕의 차원들이고, 내집단/충성, 권위/존경, 순수성/신성함은 ‘연결 기반들(binding foundations)’, 다시 말해 집단에 대한 소속과 헌신과 관계된 도덕의 차원들이다.

본 연구가 정치적 판단의 맥락에서 주목하는 점은 이 도덕적 기초들에 대한 판단의 차이가 정치적 진영들 간의 갈등을 설명하는 데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Haidt와 동료들의 연구(Graham et al., 2009 등)에 따르면 보수 진영에서는 다섯 가지 도덕 기반을 모두 중요시하는 데 반해 진보 진영에서는 상대적으로 위해/돌봄과 공평/상호성의 기준을 더 중요시한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 추구를 우선시하는 진보주의자와, 반

대로 집단에 의한 개인의 통제를 우선시하는 보수주의자 간에 중요하게 판단하는 도덕성 기반의 차원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진영 간의 도덕성 기반 판단 차이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반복 검증되었다(Kim, Kang, & Yun, 2012; 이재호, 조궁호, 2014). Haidt 등에 따르면(Graham et al., 2009) 이념의 양쪽에 위치한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해석과 평가도 달라진다. 이와 관련하여 정은경, 정혜승, 손영우(2011)와 정은경, 손영우(2011)는 각각 용산재개발사건과 간통죄에 대해 보수와 진보 진영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도덕성 기반을 사용해서 판단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도덕성 기반 이론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정은경, 정혜승, 손영우(2011)의 연구에서는 보수와 진보에 속한 사람들에게 용산재개발사건에 대한 담론에서 많이 나타나는 개념들끼리의 연관성을 판단하게 하였다. 이 개념들과 용산재개발사건 간에 얽힌 연결망을 분석한 결과, 보수 진영의 참가자들은 권위와 관련된 개념들을, 진보 진영의 참가자들은 위해와 공정에 관한 개념들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들로 파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도덕성 기반 이론은 이념적 성향 차이의 기저에 도덕적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간극이 존재함을 밝혀내어 정치적 태도가 많은 부분 도덕에 관한 직관적인 사고에 의해 결정됨을 보였다.

성격 특징

정치와 이념의 맥락에서 의미 있는 또 다른 개인차 변인으로는 성격 특징이 있는데, 정치적 사고와의 관련성을 추적한 초기 연구에서는 주로 이념과 직접 관련이 있을 법한 구체적인 특징 차원들이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Adorno, Frenkel-Brunswik, Levinson, & Stanford, 1950; Rokeach, 1960 등). 보다 최근에는 성격의 하위

수준 특징들에 대한 관심이 퇴조하고 주로 성격 심리학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John, Naumann, & Soto, 2008) 5요인 성격 특징들(McCrae & John, 1992)과 정치적 성향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Jost 등(2008)에 의하면 5요인 특징들 중에서 성실성(정치적 보수성과 양의 상관)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정치적 진보성과 양의 상관)이 이념 성향과 가장 관련성이 크다고 한다. Vecchione, Schoen, Castro, Ciecich, & Pavlopoulos(2011)의 연구에서는 유럽의 5개국에서 성격 특징들이 정당 선호를 예측하는 정도를 관찰했는데 역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가장 큰 설명력을, 성실성이 그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에스파냐에서는 중도우파 정당(중도좌파 정당에 비하여)을 선택할지 여부를 경험에 대한 개방성(교차비 = 3.14)과 성실성(교차비 = 0.39)이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다른 연구들(Barbaranelli, Caprara, Vecchione, & Fraley, 2007; Schoen & Schumann, 2007 등)에서는 친화성 또한 대통령 후보나 정당 등의 선호에 대한 예측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국 대통령 후보의 선호도를 묻은 Barbaranelli 등(2007)의 연구에서는 친화성 차원이 경험에 대한 개방성 다음으로 예측력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반면 외향성과 신경증성의 정치적 판단과의 관계는 여러 연구들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유권자의 심리적 특성들

이와 같이 선행 연구들은 정치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상위 수준의 심리적 요인들이 정치적인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혀왔다. 이 연구들의 공통적인 함의는 첫째, 정치적 사고에 있어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심리적 특성들이 - 때로는 본인이 의식할 수 없는 수준에서 -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둘째, 따라서 이러한 기본적인 심리적 특성들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정치적 태도와 행동에서 나타나는

개인간, 집단간 차이들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특성들 중 앞서 살펴본 기본적인 개인 가치와 도덕성 기반, 그리고 성격 특질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밖에 정치적인 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심리적 특성들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검증 모형의 간결성을 위해서 고려에서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사회적 지배 지향성(Social Dominance Orientation; SDO; Sidanius & Pratto, 1999)과 우익 권위주의(Right-Wing Authoritarianism; RWA; Altemeyer, 1981)는 개념적으로 기본적인 개인 가치의 차원과 많이 중복이 되어(SDO는 권력, RWA는 전통 등의 차원과 높은 상관을 보임; Feather & McKee, 2012) 하나의 모형에서 동시에 고려하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지적 종결의 욕구(Kruglanski & Webster, 1996)는 동기화된 인지 변인으로서 그 효과가 태도를 통해 매개되기보다는 인지 과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본 연구에서 검증한 모형에 포함하지 않았다.

기본적인 심리적 특성들과 정치적 태도, 그리고 정치적 행동

기본적인 심리적 특성들이 정치적 행동을 결정하는 경로

기본적인 심리적 특성들이 정치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가 문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Schwartz 등(2010)이 검증한 가치-태도-행동(value-attitude-behavior) 위계를 모델로 하여, 기본적인 개인 가치들 이외에 도덕성 기반이나 성격 특질과 같은 심리적 특성들도 구체적인 정치적 태도에 의해 매개되어 정치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Schwartz 등(2010)은 이탈리아의 2006년 총선의 맥락에서 기본적인 개인 가치들이 핵심 정치 가치들(core political values)을 통해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을 검증하

였다. 이들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저마다 독특한 기본적인 개인 가치들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 개인 가치들은 동기적 속성을 가지고 행동과 태도를 결정한다. 하지만 가치 차원들은 매우 추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정치적 맥락과 연결되지 않는다. 즉 Schwartz 등(2010)에 의하면 일반적인 유권자들은 인지적인 한계 또는 정보의 불충분함 때문에 가치들을 구체적인 정치적 맥락에서 직접 해석하고 적용하거나 구체적인 정책이 특정 가치 차원에서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 대신에 가치는 구체적 상황에서의 규범, 태도를 규정하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정치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Schwartz 등(2010)은 이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2006년 이탈리아 총선에 참가한 유권자들에게 기본적인 가치들 열 차원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전통적 윤리(traditional morality)’, ‘평등(equality)’ 등의 여덟 가지 핵심 정치적 가치들에 대한 선호도를 물었다. 분석 결과 이들 측정치들은 대체로 가설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상호 관련성을 나타내었으며, 기본적인 개인 가치들이 두 달 뒤의 투표 행동에 미치는 효과는 핵심 정치적 가치들의 효과에 의해 매개됨이 확인되었다.

이념 또는 정치적 태도의 조작적 정의 문제

본 연구에서는 Schwartz 등(2010)의 이론을 토대로 하여, 개인의 기본적인 심리적 특성이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미쳐서 정치적 태도로 구체화되고 이는 선거에서의 후보 선택이라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념 또는 정치적 입장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측정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을 계량화할 때 흔히 좌우 또는 진보와 보수의 개념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1차원적 개념 정의는 - 현실 정치에 대한 담론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문제

가 될 수 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정치적 태도들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물었을 때의 답변이 그들이 자기 보고하는 이념적 성향과 잘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이현지, 2003). 예를 들어 구체적인 정치적 문제들에 있어서는 진보와 보수에 각각 대응하는 입장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일련의 입장들에 개인이 동의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높지 않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념을 보수/진보와 같이 1차원적인 개념화를 하기 보다는 여러 차원으로 개념화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Feldman & Johnston, 2014). 그렇다면 어떤 차원들이 있는가? Jost 등(2008)은 정치이념과 관련하여 질서/무질서, 동조/반항, 안정성/용통성, 전통/진보, 전통 가치/페미니즘의 다섯 차원을 제시하였고, Feldman과 Johnston(2014)은 경제 성장/분배, 사회 안정/개인의 자유 추구의 두 측면(각각 경제; 사회 또는 도덕)에서 진보 또는 보수를 개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Schwartz 등(2010)에서는 평등, 자유 시장, 법과 질서, 시민 자유 등의 정치적 이슈 여덟 개를 핵심적인 정치적 가치(core political values)로 명명하고 그에 동의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강원택(2004; 경제적 이념 태도, 권위 대 자유주의, 근대 대 탈근대적 가치, 반공이데올로기의 유지 대 폐기), 윤성이(2006; 안보, 경제, 사회가치의 세 분야의 아홉 개 사안), 진영재와 김민욱(2007; 대복지원, 성장 대 분배, 사전검열, 빈곤층 지원 등 여덟 개 사안), 윤성이와 이민규(2011; 대복지원, 성장 대 분배, 경제발전 대 환경보호) 등이 이와 유사한 차원들을 사용하였다.

한편 Jost와 그의 동료들은 체제정당화 이론(System Justification Theory; Jost, Banaji, & Nosek, 2004)을 통해 각 사회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나타내는 동기화된 인지(motivated cognition)의 측면을 조명하였는데, 이 체제정당화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정치적 태도의 동기적인 측면들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 체제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라는 생각을 유지하고 싶어 하고, 그 결과 현재의 체제를 합리화하려는 동기를 갖게 된다. 이런 체제정당화의 동기는 체제의 불합리함을 간과하는 한편 체제에 불만을 표하는 세력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념적으로도 체제정당화는 그 정의 자체에 따라 보수 우익의 성향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는데, 체제를 정당화함으로써 사회의 변화보다는 현 체제의 유지를 더 지지하고 원하는 보수적 태도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제정당화는 정치적 태도에 관한 변인으로 중요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정치적 태도를 개념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일차원적인 정의뿐만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입장들, 그리고 체제정당화의 정도 등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변인들 간에 복잡한 인과관계가 존재할 수 있으나(윤성이, 이민규, 2011; Jost, 2006) 본 연구에서는 이념적 성향이나 구체적인 정치적 입장들, 체제정당화의 정도가 각각 개인의 정치적인 위치를 독특하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이들을 모두 별개의 변인들로 취급하기로 하였다.

한국 정치의 특수성

이념과 정치적 태도에 대한 이론들은 대개 미국 등 민주주의의 오랜 전통을 가진 국가들의 맥락에서 주장된 것들이다. 그에 비해 한국은 민주적인 정치 체제의 역사가 길지 않고 분단 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정치적 태도에 있어서 세 가지 독특한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구체적인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입장에서 보수와 진보 간에 차이가 매우 적다(강원택, 2004; 김무경, 이갑윤, 2005; 윤성이, 2006). 둘째, 각 정치적 사안들에 대한 태도의 일관성이 낮다(김주찬, 윤성이, 2003; 이현지, 2003). 이 두 가

지 점에 대해 학자들(윤성이, 2006; 이현지, 2003 등)은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스스로 보고하는 이념적 성향이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추상화, 일반화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별개의 과정을 통해서(예를 들어 지지 후보나 정당의 정치적인 동원의 결과로) 형성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1차원적인 이념 성향 측정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므로 이념적 성향과 구체적인 정치 사안들에 대한 입장들을 최소한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정치적 태도 차원인 대북관, 즉 북한에 대한 유화 또는 강경의 입장이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작용한다(강원택, 2004; 김무경, 이갑윤, 2005; 김주찬, 윤성이, 2003; 윤성이, 2006). 이념의 차이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정당의 입장에 있어서도 실제로 군소 정당을 제외한 한국의 주요 양당이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 내의 여러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에 있어서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다른 어떤 사안에서보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에서 유화와 강경 중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의 사안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한국 사회 특유의 이념적인 특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외국의 선행 연구에서 확인되었던 심리적 특성들과 정치적 태도, 후보 선택의 관계에 대한 결과들이 한국 상황에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경험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들의 성격 특질이나 도덕성 기반, 기본적인 개인 가치 등의 심리적 특성이 이념적 성향과 같은 정치적 태도와 더 나아가 후보 선택과도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이 심리적 특성들이 정치적 태도를 매개하여 후보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차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심리적 특성들의 효과를 한국의 정치적 맥락에서 살펴 보았다. 한국 정치의 맥락에서 이념적 입장에 따라 심리적인 특성들을 살펴본 연구들은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앞서 언급한 한국 정치 상황의 특수성이 반영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정치적 태도와 판단에 있어서 한국 정치 상황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정치적 태도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던 변인들, 즉 기본적인 개인 가치, 도덕성 기반, 성격 등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전체 변인들이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해외의 선행 연구들 중에도 본 연구에서처럼 다양한 심리적 특성 변인들을 동시에 고려한 사례는 많지 않다(Caprara et al., 2006; Caprara, Vecchione, & Schwartz, 2009). 이를 통해 여러 변인들이 정치적 판단에 있어서 각각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가지며 그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 연구들에서는 정치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심리적 특성들을 밝혔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다양한 심리적 특성들이 어떻게 정치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다. 즉 심리적 특성들이 어떤 구체적인 정치적 태도 차원들과 관련성이 있고, 정치적 태도들이 다시 투표와 같은 정치적 판단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았다. Schwartz 등(2010)은 열 개의 기본적인 가치 차원들이 정치적 태도 측면들을 통하여 선거에서의 후보 선택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지만 성격 특질이나 도덕성 기반과 같은 변인들을 함께 고려하지는 않았다. 또한 심리적인 특성들(그 자체로서는 정치와 직접 관련이 없는)이 정치적 태도와 행위를 예측하는 양상에 관한 연구는 몇몇 예외는 있지만 주로 서구에서 수행되어, 이러한 연구에서 관찰된 결과들이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서도

발견될지는 분명하지 않다. 앞서 본 한국 정치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일반화 가능성의 문제는 직접적인 검증이 더욱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선행 연구의 한계를 출발점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 문제들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연구 문제 1. 심리적 특성들 중 선거에서의 후보 선택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변인들은 어떤 것인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 외국의 선행 연구들에서 밝혀진 정치적인 사고 또는 판단과 연관성이 있는 변인들이 한국의 대통령 선거의 맥락에서도 차이를 나타내는지 검증해 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진보 또는 보수 진영의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각각 기본적 개인 가치 차원, 도덕성 기반, 성격 특질들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토하였다.

선행 연구들에 바탕을 둔 예측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본적 개인 가치의 차원 중 자기초월적 가치 요인에 가까운 보편주의와 박애는 진보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성을 예측하고 반대로 자기고양적 가치에 해당하는 성취와 권력은 보수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과 관련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자율, 자극 등 변화에 대한 개방 가치들은 진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전통, 동조, 규범 등 보수 가치들은 보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예측할 것으로 보았다(Caprara et al., 2006; Piurko et al., 2011; Schwartz et al., 2010). 도덕성 기반과 관련해서는 도덕적 판단에 있어 개인화 기반들(위해/돌봄, 공평/상호성)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진보 후보를, 연결 기반들(내집단/총성, 권위/존경, 순수성/신성함)을 중요시할수록 보수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Graham et al., 2009; Kim et al., 2012; 이재호, 조궁호, 2014). 성격 특질의 측면에서는 진보 후보의 지지자들이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친화성에서, 보수 후보의 지지자들은 성실성에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Barbaranelli et al., 2007; Caprara et al., 2009; Jost et al., 2008; Schoen &

Schumann, 2007; Vecchione et al., 2011).

연구 문제 2. 정치적 태도들 중 후보 선택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차원은 무엇인가? 선행 연구들에서 제기된 구체적인 정치적 태도의 차원들 중에서 어느 것들이 실제로 정치적 선택을 예측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의 양대 정당의 두 유력 대선 후보의 지지 집단들 간에 정치적 태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윤성이와 이민규(2011), Feldman과 Johnston(2014) 등이 주장한 바와 같이 스스로 의식해서 보고하는 이념 성향만으로는 한 사람의 정치적 태도를 완벽히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태도를 스스로 인식하는 주관적인 이념적 성향과 함께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사안에 대한 입장들, 그리고 체제정당화 정도를 사용해서 측정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사안들 중에서는 국내 선행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강원택, 2004; 김무경, 이갑윤, 2005; 김주찬, 윤성이, 2003; 윤성이, 2006) 북한에 대한 입장이 후보 지지자들을 가장 잘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연구 문제 3. 정치적 태도들은 심리적 특성들과 후보자 선택 간의 관계를 어떻게 매개하는가? 개인의 심리적 특성들과 정치적 태도들이 각각 후보 선택을 어떻게 예측하는지를 살펴본 후에, 후보 선택을 예측하는 것으로 밝혀진 심리적 특성들의 효과가 구체적인 정치적 태도들에 의해 어떻게 매개되는지를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를 위해 Schwartz 등(2010)의 매개 효과 연구를 모델로 하여 경로 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Schwartz 등(2010)의 연구에서는 열 개의 기본적 개인 가치들 중 안전, 동조, 전통, 보편주의, 권력이 정치적 태도들에 의해 매개되어 후보 선택을 예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 개인 가치들에 더불어 도덕성 기준들과 성격 특질들도 함께 검토하였다. 다시 말해, 이 변인들이 후보 선택에 따라 차이

를 보이는지를 확인한 뒤에, 차이가 나타난 변인들의 효과들이 정치적 태도 차원들에 의해 매개되는지, 만약 그렇다면 각각은 어떤 정치적 태도 측면들을 통해 후보 선택을 예측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개인의 기본적인 심리적 특성들이 구체적인 정치적 태도를 통해 투표라는 정치적 행동에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를 탐색하였다.

방 법

이 연구에서 다룬 정치적 맥락

위의 연구 문제들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12년에 치러졌던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직전에 설문 조사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제18대 선거에서 보수 세력은 재집권, 진보 세력은 권력 탈환에 대한 열망이 매우 강하여 박빙의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실제로 개표 결과 박근혜 후보가 3% 포인트 정도의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었다. 본 연구의 제18대 선거의 양 진영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다.

참가자

2012년 12월 19일 대선 직전(12월 6일에서 13일 사이), 온라인 리서치 회사에 설문을 의뢰하여 다양한 연령대(20세-66세)의 대한민국 성인 남녀 300명(여성 152명)을 각 지역의 인구비율에 맞추어 모집하였다. 두 후보의 지지자들만 모집을 한 것은 아니었으나 분석의 용이성을 위해 설문의 뒷부분에 박근혜와 문재인 두 명의 후보 중 지지하는 후보를 고르게 함으로써 설문 대상을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지지자로 한정하였다. 전체 표본에서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은 137명(45.67%),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은 163명이었다. 참가자의 인구통계

학적 구성이 표 1에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연구 내용과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한 뒤에 실시하였다.

절차 및 도구

참가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설문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본 설문이 2012년 12월 치러질 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실시되는 연구이며, 정치적 판단에 관련된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라고 안내되었다. 10대를 설문에서 제외하고 각 성별 및 연령대별 표본을 고르게 추출하기 위해 일부 인구통계학적 질문(성별, 연령, 지역)이 먼저 주어졌다. 그 후 참가자들은 자신의 심리적 특성(성격 특질, 도덕성기반, 개인적 기본 가치 등)과 정치적 태도(이념적 성향, 정치적 신념, 체제정당화 등)에 대한 질문들에 답하였다. 이 측정들 뒤에 참가자들은 나머지 인구통계학적 질문들(객관적/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답함으로써 설문을 마무리하였다. 참가자들은 리서치 회사를 통해 설문참가비로 약 500원 상당의 마일리지 포인트를 지급받았다.

성격 특질

John과 Srivastava(1999)가 개발한 Big Five Inventory 44문항을 김지현, 김복환, 하문선(2011)이 번역, 타당화하고 축약한 성격 5요인 척도 15문항 중 선행 연구에서 정치적 태도와 관련이 깊다고 알려진 세 요인(성실성, 친화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측정하였다. 요인 당 세 문항씩 총 아홉 문항이 주어졌으며, 예를 들어 성실성의 경우 “나는 일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다” 등의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7점 척도(1 =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7 = “매우 동의한다”) 상에서 답변하도록 하였다. 각 요인들의 기술통계량은 성실성은 $M = 5.13$, $SD = 0.91$, 친화성은 $M = 4.90$, $SD = 0.96$,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M = 4.73$, $SD = 1.06$ 이었고, 각 요인들의 문항

표 1. 인구통계학적 변인 별 참가자 빈도

	구분	남성(%)	여성(%)	계
성별		148	152	300
연령	20대	16(10.8)	32(21.1)	48(16.0)
	30대	36(24.3)	32(21.1)	68(22.7)
	40대	61(41.2)	67(44.1)	128(42.6)
	50대	26(17.6)	18(11.8)	44(14.7)
	60대	9(6.1)	3(2.0)	12(4.0)
거주지역	서울	30(20.3)	31(20.4)	61(20.3)
	경기/인천	43(29.1)	44(28.9)	87(29.0)
	부산/울산/대구/경상	39(26.4)	39(25.7)	78(26.0)
	광주/전라	15(10.1)	16(10.5)	31(10.3)
	대전/충청	15(10.1)	16(10.5)	31(10.3)
	강원	4(2.7)	5(3.3)	9(3.0)
	제주	2(1.4)	1(0.7)	3(1.0)
가계 월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5(3.4)	4(2.6)	9(3.0)
	100-200만원 미만	17(11.5)	28(18.4)	45(15.0)
	200-300만원 미만	22(14.9)	30(19.7)	52(17.3)
	300-400만원 미만	34(23.0)	26(17.1)	60(20.0)
	400-600만원 미만	46(31.1)	35(23.0)	81(27.0)
	600-800만원 미만	13(8.8)	22(14.5)	35(11.7)
	800-1000만원 미만	5(3.4)	1(0.7)	6(2.0)
	1000만원 이상	5(3.4)	5(3.3)	10(3.3)

간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alpha는 각각 .83(성실성), .82(친화성), .87(경험에 대한 개방성)이었다.

도덕성 기반

Graham 등(2011)의 도덕성 기반 5차원 20문항을 Kim 등(2012)이 번역한 것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열 문항씩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데(각 차원당 두 문항씩), 첫 부분에서 참가자들은 자신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각

문항의 측면이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6점 척도(1 = “전혀 중요하지 않다”, 6 = “지극히 중요하다”)로 응답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어떤 사람이 약하거나 다치기 쉬운 사람을 배려했는지의 여부”(위해/돌봄 차원)와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대우를 받았는지(차별 받았는지의 여부)”(공평/상호성 차원)가 있다. 이 첫 번째 부분에 있어 Kim 등(2012)과 가장 큰 차이는 Kim 등은 문항과 기준점에서 사용한 “relevant”란 단어를(도덕적 판단에 있어서 각 항목이) “관련되다” 또는 “관계가 있다”라고 번역

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중요하다”라고 번역한 것이다. 이는 문장들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두 번째 부분은 제시된 문장들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묻는 문항들로 이루어졌다. 마찬가지로 6점 척도(1 =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6 = “매우 동의한다”)로 답변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자랑스럽다.”(내집단/충성 차원),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 모든 어린이가 배워야 하는 것이다.”(권위/존경 차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역겨운 일을 해서는 아니된다.”(순수성/신성함 차원)가 있다. 각 요인들의 기술통계량은 위해/돌봄 $M = 4.24, SD = 0.91$, 공평/상호성이 $M = 4.57, SD = 0.73$, 내집단/충성이 $M = 4.00, SD = 0.70$, 권위/존경이 $M = 3.91, SD = 0.81$, 순수성/신성함이 $M = 4.30, SD = 0.66$ 이었고, 각 요인들의 문항간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는 각각 .71(위해/돌봄), .74(공평/상호성), .60(내집단/충성), .70(권위/존경), .67(순수성/신성함)이었다.

기본적 개인 가치

Schwartz의 기본적 개인 가치 열 차원을 측정하는 척도는 Schwartz Value Survey(SVS; Schwartz, 1992)와 이보다 쉬운 문항들로 구성된 Portrait Values Questionnaire(PVQ; Schwartz et al., 2001)가 있다. 이 중 SVS는 김연신과 최한나(2009), 그리고 신현희(2011)가 한국어로 번역, 타당화 하였고 PVQ는 서지영과 정영숙(2012)이, 그리고 개정판 척도인 PVQ-R(Schwartz et al., 2012)는 최정원과 이영호(2014)가 한국어로 유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의 길이를 고려하여 World Values Survey(WVS)에서 사용하기 위해 PVQ를 열 문항으로 축약해서 만들었던 것(각 가치마다 하나의 문항)을 사용하였다(World Values Survey Association, 2005-2008). 한국어 번역판은 WVS의 Wave 5(2005년-2009년)에서 사용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표현이 매끄럽지 않은 문항들을 약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참가자들은 각 문항에서의 묘사가 자신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비슷한지 6점 척도(1 = “나와 전혀 비슷하지 않다”, 6 = “나와 대단히 비슷하다”) 상에서 답변하였다. 기본적 개인 가치 열 차원 중 안전의 경우 “이 사람에게는 주변이 안전하여 위험이 없는 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M = 4.04, SD = 1.06$)의 문항이, 동조는 “이 사람에게는 비난 받을만한 일을 하지 않고 정도를 걷는 것이 중요하다.”($M = 4.23, SD = 1.06$), 전통은 “이 사람에게는 전통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M = 3.56, SD = 1.12$), 박애는 “이 사람에게는 이웃을 돕고 이웃의 안녕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M = 3.83, SD = 1.09$), 보편주의는 “이 사람에게는 자연보호가 중요하다.”($M = 4.02, SD = 1.05$), 자율은 “이 사람에게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창조적인 생각을 갖고 자기 방법대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M = 3.82, SD = 1.06$), 자극은 “이 사람에게는 모험과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M = 3.70, SD = 1.08$), 쾌락주의는 “이 사람에게는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M = 4.08, SD = 1.10$), 성취는 “이 사람에게는 성공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M = 3.81, SD = 1.20$), 마지막으로 권력은 “이 사람에게는 부유하게 살고, 돈이 많아 값비싼 물건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M = 3.01, SD = 1.34$)의 문항들이 주어졌다.

정치적 태도

정치적 태도는 좌우의 연속선상에서의 위치(‘이념적 성향’), 구체적인 이슈에 있어서의 생각(‘정치적 입장’), 체제정당화의 세 가지 방법으로 측정되었다. 먼저 참가자들은 본인의 이념적 성향이 어디에 위치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7점 척도(1 = “매우 진보적”, 4 = “중도”, 7 = “매우 보수적”)로 응답하였다.

둘째로 참가자들은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정치적 입장을 자기 보고하였다. 이 정치적 입장 문항들은 진보/보수의 단일 차원의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 다차원적인 정치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는 외국의 선행연구(Schwartz et al, 2010)에서 측정된 핵심적 정치 가치 문항들을 참고하는 한편 한국의 선행 연구(강원택, 2004; 윤성이, 2006; 진영재와 김민욱, 2007; 윤성이와 이민규, 2011 등)에서 다루어졌던 정치적 사안 중에 진보와 보수가 잘 구분될 수 있는 대북관(북한에 변화요구/북한에 인도적 지원), 경제(경제성장/소득분배), 사회(사회질서유지/개인의 자유보장), 탈물질(경제성장/환경보호)의 네 개의 정치적 사안을 선정하였다. 참가자들은 반대의 두 가치(예를 들어 북한에 변화 요구 대 북한에 인도적 지원)가 가로의 양 극단에 놓여 있는 각 차원에서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7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각 차원에 대해 위에 대비된 두 가치들 중 앞의 것(보수적 입장)에 찬성할수록 점수가 높은 것으로 계산되었다. 예를 들어 대북관 문항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북한에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 것보다 북한에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4점은 중립의 태도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체제정당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Kay와 Jost(2003)의 체제정당화 척도 여덟 문항 중 참가자들이 비교적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저자들이 판단한 네 개 문항을 선택하여 번역, 사용하였다. 참가자들은 “대체로 우리 사회는 공평한 것 같다.”, “한국 사회는 급격히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다.”(역산),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이다.”, “모든 사람들은 물질적 부와 행복을 얻을 기회를 갖고 있다.”의 네 개 문장에 동의하는 정도를 7점 척도(1 =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7 = “매우 동의한다”) 상에서 응답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는 그 내용에 따라 적절히 역산한 뒤 평균을 계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현 체제를 정당화하는 것을 의미하도

록 하였다(Cronbach's alpha = .52).

Schwartz 등(2010)에서는 정치적 입장에 대한 문항들을 요인분석하여 각 요인들을 여섯 개의 핵심적인 정치적 가치로 명명하고 그것들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각각 하나의 문항만으로 선행연구에서 구분된 몇 가지 요인의 정치적 입장을 측정하였고 각 측정간의 상관도 높지 않았으므로($|r| < .53$), 각 입장들을 별도의 변인으로 취급하였다. 정치적 태도의 기술 통계량은 이념적 성향이 $M = 3.64$, $SD = 1.10$, 정치적 입장 문항 중 북한변화요구/북한지원이 $M = 4.24$, $SD = 1.48$, 경제성장/소득분배가 $M = 3.88$, $SD = 1.49$, 질서유지/자유보장이 $M = 4.09$, $SD = 1.51$, 경제성장/환경보호가 $M = 3.93$, $SD = 1.48$, 마지막으로 체제정당화가 $M = 3.63$, $SD = 0.85$ 이었다.

인구통계학적 질문

참가자들은 자신의 직업과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 응답한 뒤에 두 후보 중 지지 후보를 선택하였다.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와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를 별도로 측정한 것은 두 변인이 서로 다른 심리적 의미를 지니며 특히 권력과 권위 등의 주관적 지각을 결정하는 것은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라는 연구(Kraus, Piff, Mendoza-Denton, Rheinschmidt, & Keltner, 2012)를 근거로 한 것이다.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는 참가자 가족의 월 평균 소득으로 조작적 정의하여 ① 없음, ② 100만원 미만, ③ 100-200만원 미만, ④ 200-300만원 미만, ⑤ 300-400만원 미만, ⑥ 400-600만원 미만, ⑦ 600-800만원 미만, ⑧ 800-1,000만원 미만, ⑨ 1,000만원 이상의 9점 척도에 평정하게 하였다. 분석을 위해 범주형인 객관적인 사회적 지위를 연속 변인화하였는데, ① 없음을 0의 값으로 두고, 나머지는 100만원부터 1100만원까지 200만원 단위의 점수로 변환하였다. 그 후 왜도와 첨도 교정을 위해 로그값

으로 변환한 점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는 MacArthur Scale of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Adler, Epel, Castellazo, & Ickovics, 2000)로 측정하였는데, 이 척도에서는 열 개의 층이 있는 사다리 그림을 제시하여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소득, 교육, 직업의 측면에서 한국 사회에서 어디쯤에 위치해 있을 것으로 보는지를 보고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두 후보에 대한 태도를 물었는데 참가자들은 박근혜와 문재인 두 후보 중 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후보를 선택할 것인지 응답하였다.

결 과

각 후보 지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차이

측정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 각 후보 지지자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박근혜 후보 지지자 연령의 평균은 42.11세(*SD* = 10.07)였고, 문재인 후보 지지자의 평균 연령은 39.31세(*SD* = 10.51)로 문재인 후보 지지자에 비해 박근혜 후보 지지자의 평균 연령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t(298) = 2.34, p = .02, \text{Cohen's } d = 0.27$. 이것은 한국의 유권자들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보수적 정치 태도를 갖게 된다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일부 부합하는 결과이다(이내영, 정한울, 2013). 또한 박근혜 후보 지지자가 평가한 자신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평균 3.80점(*SD* = 1.64)이었고 문재인 후보 지지자가 평가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평균 3.36점(*SD* = 1.75)으로 박근혜 후보 지지자가 평가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t(298) = 2.27, p = .02, \text{Cohen's } d = 0.26$. 반면 객관적 지위를 알아보기 위해 측정한 참가자가정의 월 소득은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t(298) = -0.58, p = .56, \text{Cohen's } d =$

-0.07. 이 결과는 각 후보 지지자들의 실제 객관적 소득수준에는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이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에 비해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게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문제 1: 각 후보 지지자의 심리적 특성 차이

각 후보 지지자들의 성격과 도덕성, 기본적인 개인 가치 등 심리적 특성 점수의 평균과 *t*값, 확률값 및 효과크기가 표 2에 제시되었다.

성격 특질

각 후보 지지자들 간의 심리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박근혜와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 간에 성격의 세 가지 하위요인들인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친화성, 성실성에는 모든 $t < 1.00, n$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는 이 세 특질들이 정치적 성향과 선거 후보자 선택의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외국의 선행 연구들(Barbaranelli et al., 2007 등)의 결과와 배치되는 것이다.

도덕성 기반

Graham 등(2009)의 선행 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도덕성 기반의 다섯 차원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Haidt 등이 반복 검증한 외국의 사례들(Graham et al., 2009; Haidt, Graham, & Joseph, 2009)뿐만 아니라 한국 자료를 이용한 연구들(Kim et al., 2012; 이재호, 조궁호, 2014)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오직 권위/존경에서만 유의수준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는데,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은 문재인 후보 지지들에 비해서 권위/존경 차원이 도덕성 판단에 관련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기본적 개인 가치

Schwartz(1992)의 기본적 개인 가치 이론에서

표 2. 두 후보 지지자들의 성격, 도덕성 기반, 기본적 개인 가치에서의 기술 통계치들

		박근혜 후보 지지자	문재인 후보 지지자	<i>t</i>	<i>p</i>	Cohen's <i>d</i>
		<i>M</i> (<i>SD</i>)	<i>M</i> (<i>SD</i>)			
성격	경험에 대한 개방성	4.74(1.07)	4.71(1.06)	0.23	.82	0.03
	친화성	4.92(0.89)	4.89(1.02)	0.27	.79	0.03
	성실성	5.11(0.95)	5.14(0.88)	-0.25	.80	-0.03
도덕성 기반		4.25(0.64)	4.23(0.74)			
	위해/돌봄	4.52(0.72)	4.60(0.75)	0.23	.82	0.03
	공평/상호성	4.06(0.66)	3.95(0.73)	-0.97	.33	-0.11
	내집단/총성	4.00(0.75)	3.84(0.85)	1.32	.19	0.16
	권위/존경	4.29(0.64)	4.31(0.68)	1.78	.08	0.20
기본적 개인 가치	순수성/신성함	4.18(0.98)	3.93(1.11)			
	안전	4.31(1.03)	4.16(1.09)	2.04	.04	0.24
	동조	3.78(1.01)	3.37(1.17)	1.26	.21	0.14
	전통	3.93(1.12)	3.74(1.06)	3.23	< .001	0.38
	박애	4.06(0.98)	3.99(1.11)	1.47	.14	0.17
	보편주의	3.87(1.05)	3.77(1.07)	0.58	.56	0.07
	자율	3.82(1.08)	3.60(1.08)	1.79	.07	0.20
	자극	4.07(1.05)	4.09(1.14)	-0.21	.84	-0.02
	쾌락주의	4.00(1.13)	3.64(1.23)	2.59	.01	0.30
	성취	3.23(1.30)	2.82(1.35)	2.72	.01	0.31

주. 모든 *t*검정에서 *df* = 298.

제안한 가치관 열 차원에서의 각 후보 지지자들의 차이를 *t*검정한 결과, 안전, 전통, 성취, 권력의 차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안전과 전통, 성취, 권력의 차원들에서 모두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이 더 높은 평균을 보였다. 이는 Schwartz 등(2010)의 연구에서의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수 후보의 지지자가 해당 차원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극의 경우는 유의수준에 근접한 차이를 보였으나 박근혜 후보 지지자에서 점수가 더 높아 본 연구의 예측과 선행 연구의 결과와는 반대의 방향을 보였다. 이 결과

는 자극의 차원에서만큼은 박근혜 지지자들과 문재인 지지자들이 Piurko 등(2011)의 외국 연구에서 나타난 보수-진보세력 간의 구분과 일치하지 않음을 나타내는데, 이로부터 이 차원이 한국의 정치 맥락에서는 외국에서와 다른 이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상 보고된 바와 같이 세 가지 심리적 특성들(성격 특질, 도덕성 기반, 기본적 개인 가치) 중에서 양 후보 지지자들 간에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 것은 기본적 개인 가치였다. 이념 성향이 성격 특질, 도덕성 기반과 관련된다는 것이 국내외 선행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의 가능한 이유들에 대해서는 논의 부분에서 고려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기초로, 아래에서 정치적 태도, 후보 지지와의 관련성을 살펴봄에 있어서 심리적 특성들 중 기본적 개인 가치만을 고려하였다.

연구 문제 2: 각 후보 지지자의 정치적 태도 차이

이념적 성향

각 후보 지지자들의 이념적 성향과 정치적 입장, 체제정당화 등 심리적 특성 점수의 평균과 *t*값, 확률값과 효과의 크기가 표 3에 제시되었다. 각 후보 지지자들의 이념적 성향 점수(높을수록 보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의 평균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예상한 대로 박근혜 후보 지지자가 문재인 후보 지지자보다 자신이 정치적으로 보수라고 응답하였다.

정치적 입장

구체적인 정치 사안에 대한 입장을 네 가지 차원으로 측정된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도 *t*검정을 실시하여 각 후보 지지자들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각 분야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보수적인 정책을 지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

치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네 개의 정치적 입장 점수는 모두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이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보다 높았고, 네 개 차원 중에 질서유지/자유보장을 제외하고 북한변화요구/북한지원, 경제성장/소득분배, 경제성장/환경보호 문항들의 평균차는 모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했다.

체제정당화

현 사회 체제를 정당화하는 정도의 측정에서 각 후보 지지자들의 평균차가 있는지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이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체제정당화 수준을 보였다. 종합하면 질서유지/자유보장을 제외한 정치적 태도의 모든 차원에서 양 후보 지지자들의 차이가 예상한 방향대로 나타났다.

연구 문제 3: 심리적 특성-정치적 태도-후보 선택의 매개 효과

기본적 개인 가치는 정치적 태도를 얼마나 잘 예측하는가? 그리고 기본적 개인 가치와 정치적 태도는 후보 선택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과 회귀분석, 그리고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정치적 태도 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추리통계치들

		박근혜 후보 지지자	문재인 후보 지지자	<i>t</i>	<i>p</i>	Cohen's <i>d</i>
		<i>M(SD)</i>	<i>M(SD)</i>			
	이념적성향	3.94(1.12)	3.39(1.02)	4.50	< .001	0.51
	북한변화요구/북한지원	4.67(1.52)	3.87(1.35)	4.73	< .001	0.56
정치적 입장	경제성장/소득분배	4.27(1.40)	3.55(1.49)	4.28	< .001	0.50
	질서유지/자유보장	4.13(1.57)	4.06(1.45)	0.44	.66	0.05
	경제성장/환경보호	4.22(1.44)	3.69(1.48)	3.10	< .001	0.36
	체제정당화	3.83(0.73)	3.45(0.90)	4.08	< .001	0.46

주. 모든 *t*검정에서 *df* = 298.

상관분석

세 번째 연구 문제는 Schwartz 등(2010)의 연구에서와 같이 기본적인 개인 가치가 정치적인 태도를 구성하고 그 정치적 태도가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모형이 본 연구의 자료에서도 성립되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변인들끼리의 관계는 어떤 패턴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것이다. 먼저 기본적인 개인 가치들이 정치적 태도를 얼마나 예측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본적인 개인 가치 열 차원과 정치적 태도의 각 항목들(이념적 성향, 네 가지 정치적 입장, 체제정당화)의 이변량 상관분석의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보수 대 진보의 이념적 성향은 열 가지 차원의 기본적인 개인 가치 중 안전, 동조, 전통, 권력을 제외한 나머지 가치들, 즉 박애, 보편주의, 자율, 자극, 쾌락주의, 성취와 유의미하게 부적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 중 보수적 성향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가치인 성취를 제외한 나머지 가치들은 모두 진보적인 사람들에게서 중요한 가치로 취급되는 것이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보수적 성향을 의미하

는 이념적 성향과 부적으로 상관이 있다는 것은 예측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구체적인 정치적 입장들과의 상관에 있어서는 먼저 북한변화요구/북한지원, 그리고 질서유지/자유보장은 체제에 대한 위협의 지각과 관련되어 변화에 대한 개방성 대 보수의 가치들(예: 자극, 전통)과 상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었다. 경제성장/소득분배 그리고 경제성장/환경보호는 그 의미상 모두 자기초월 대 자기고양의 가치들(예: 박애, 권력)과 상관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었다. 실제 결과를 살펴보면, 북한변화요구/북한지원은 안전, 동조, 쾌락주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성취와는 유의수준에 가까운 정적 상관을 보였다. 쾌락주의를 제외하고 나머지 가치들은 모두 보수적 태도와 관계있는 가치이므로 정적 상관이 나왔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측이 일부 지지되었음을 의미한다. 경제성장/소득분배는 전통, 성취, 권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중 특히 성취와 권력은 자기 고양의 가치들에 가까운 것으로 본 연구의 예측과 같은 방

표 4. 기본적인 개인 가치와 정치적 태도 변인 간의 상관

		정치적 태도					체제정당화
		이념적 성향	북한변화요구 /북한지원	경제성장 /소득분배	질서유지 /자유보장	경제성장 /환경보호	
	안전	-.01	.16**	.06	.05	-.06	.11†
	동조	-.07	.15**	.02	.04	-.09	-.03
	전통	.01	.03	.22**	.02	.12*	.23**
	박애	-.16**	-.05	.05	.00	-.04	.08
기본적 개인가치	보편주의	-.19**	-.03	-.01	.02	-.21**	.04
	자율	-.26**	.02	.06	.00	-.05	.10†
	자극	-.17**	.02	.09	-.13*	.01	.06
	쾌락주의	-.14*	.14*	-.01	-.01	-.08	.09
	성취	-.12*	.10†	.23**	-.09	.20**	.24**
	권력	-.06	-.05	.18**	-.11†	.25**	.21**

주. † $p < .10$, * $p < .05$, ** $p < .01$

향을 보였다. 질서유지/자유보장의 정치적 입장은 자극과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왔는데, 이 관계는 예측과 일치하는 방향이다. 반면 권력과는 유의수준에 가까운 부적 상관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예측과 일치하지 않았다. 경제성장/환경보호의 정치적 태도는 전통, 보편주의, 성취, 권력의 기본적인 개인 가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는데, 부적 상관을 보인 보편주의를 제외하고는 정적 상관을 보여 모두 예측과 일치하는 방향을 나타내었다. 종합하자면 개인적 기본 가치와 정치적 입장들 간의 이변량 상관은 대체로 예상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패턴을 보였으나 Schwartz 등(2010)의 연구와는 달리 대부분의 가치가 대부분의 정치적 태도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체제정당화는 전통, 성취, 권력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안전, 자율과 유의수준에 가까운 정적 상관을 보였다. 진보적 가치에 해당하는 자율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예측과 일치하는 방향의 상관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

기본적 개인 가치 열 차원이 정치적 태도를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제 변인인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성별, 연령, 객관적/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을 1단계로 넣고 기본적 개인 가치를 2단계로 넣은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한 후 기본적 개인 가치가 각각의 정치 태도를 예측하는 설명력을 의미하는 R^2 증분량인 ΔR^2 는 질서유지/자유보장($p = .13$)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모든 $p < .01$. 각각의 정치적 태도를 살펴보면, 먼저 보수 대 진보의 이념적 성향의 경우 인구통계학적 변인만 입력한 1단계 뒤에 2단계에서는 총 설명 변산의 크기(ΔR^2)가 증가해서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한 후 기본적 개인 가치가 이념적 성향을 약 14% 예측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에서는 이념적 성향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이 없었고 기본적 개인 가치들 중 안전, 전통, 보편주의, 자율이 보수 대 진보의 이념적 성향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기본적 개인 가치와 정치적 태도 간의 상관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효과가 회귀분석의 결과에서는 나타났는데(예: 안전과 이념적 성향) 이것은 다른 변인들이 억제 효과로 작용하여 상관 계수를 감소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즉 회귀분석에서 다른 변인들(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통제함으로써 변인간의 연관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정치적 입장 네 차원을 살펴보면, 첫째 북한변화요구/북한지원의 경우 1단계에 비해 2단계에서 $\Delta R^2 = .09$ 만큼의 설명력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각 변인들을 모두 살펴보면 연령($p = .03$)을 제외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은 북한에 대한 태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했으며(모든 $p > .55$), 기본적 개인 가치 중 안전, 동조와 보편주의, 권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북한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였다. 또한 박애와 성취는 유의수준에 근접한 정도로 결과 변인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정치적 입장인 경제성장/소득분배에서도 역시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의 설명력 증가를 확인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에서는 분배와 성장에 대한 태도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이 없었으며 기본적 개인 가치 중에서는 전통과 성취가 유의하게 설명력이 있었다. 세 번째 정치적 입장인 질서유지/자유보장은 1단계에서 2단계로 설명력이 근소하게 변화하였지만 예측 변인들 중 기본적 개인 가치인 자극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였다. 경제성장/환경보호는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면서 설명력이 가장 많이 늘어났으며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중에서는 이 변인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이 없었다. 기본적 개인 가치 중에서는 전통, 보편주의, 성취, 권력이 통계적으로 유의

표 5. 정치적 태도를 예측하는 기본적 개인 가치의 회귀계수

	이념적성향		북한변화요구/ 북한지원		경제성장/ 소득분배		질서유지/ 자유보장		경제성장/ 환경보호		체제정당화	
	β	ΔR^2	β	ΔR^2	β	ΔR^2	β	ΔR^2	β	ΔR^2	β	ΔR^2
1단계 인구통계학적 변인												
성별	.01		.05		-.03		.05		.04		-.03	
연령	.002		-.02*		.01		.00		.00		.00	
객관적SES	-.09	<.001	.02	.02	-.01	.02	-.06	.01	.01	.01	.07	.07***
주관적SES	.01		-.02		.10†		-.07		.05		.12***	
2단계 기본적 개인 가치												
안전	.20*		.22*		.03		.13		-.09		.00	
동조	.10		.24*		.05		.09		.07		-.06	
전통	.17*		.08		.27**		.11		.20*		.15**	
박애	-.09		-.21†		-.17		.12		-.12		-.08	
보편주의	-.22**		-.26*		-.15		.03		-.42***		-.05	
자율	-.26**	.14***	.02	.11**	-.02	.12**	.12	.07	-.14	.20***	.02	.17***
자극	-.01		-.07		-.04		-.34**		-.03		-.09	
쾌락주의	-.10		.14		-.12		-.03		-.05		.03	
성취	-.05		.18†		.27**		-.07		.28**		.15**	
권력	-.01		-.15*		.09		-.12		.26***		.05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하게 환경과 경제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였다. 또한 자율은 유의수준에 가까운 예측력을 가짐을 보여주었다.

정치적 태도 문항 중 마지막인 체제정당화는 1단계 $R^2 = .07$ 에서 2단계 $\Delta R^2 = .17$ 로의 설명력 증가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체제정당화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기본적 개인 가치 중 전통과 성취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효과를 나타낸 것은 참가자들이 스스로 한국 사회에서 본인의 위치를 높게 생각할수록 한국의 사회 체제를 긍정적인 것으로 지각하려는 동기가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먼저 질서유지/자유보장을 제외한 모든 정치적 태도 측정에 대해 기본적 개인 가치들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나타냈다. 기본적 개인 가치들을 변화에 대한 개방성 대 보수, 자기초월 대 자기고양의 두 상위 차원으로 분류하였을 때 경제성장/소득분배, 질서유지/자유보장, 경제성장/환경보호의 태도들은 대체로(전통에 의한 설명을 제외하고) 단일 상위 차원에 해당하는 가치들에 의해 설명되었다. 반면 이념적 성향, 북한변화요구/북한지원, 체제정당화는 두 상위 차원 모두에 해당하는 가치들과 관련을 보여 두 가지 차원의 가치에 대한 지향성을 모두 반영하는 개념임을 추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수 대 진보라는 일반적인 이념적

성향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는 기본적인 개인 가치들(안전, 전통, 보편주의, 자율) 중 보편주의는 자기초월 대 자기고양에 속한 가치이고, 나머지는 모두 변화에 대한 개방성 대 보수에 속한 가치들이다.

기본적 개인 가치와 정치적 태도는 후보자 선택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가?

앞의 회귀분석을 통해 쾌락주의를 제외한 기본적인 개인 가치의 아홉 가지 차원들이 정치적 태도들 중 적어도 하나 이상에 대해 유의미한 예측력을 가짐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개인 가치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하기 위해 1단계에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연령,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을 투입하고, 이후 2단계에 기본적인 개인 가치 10차원을 투입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투입된 1단계는 Nagelkerke $R^2 = .04$, Cox & Snell $R^2 = .03$, $p = .04$ 로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유의하게 후보자 선택을 예측함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연령과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력을 보였다. 기본적인 개인 가치가 투입된 2단계에서의 분석 결과 Nagelkerke $R^2 = .13$, Cox & Snell $R^2 = .10$, $p = .01$ 로 예측력이 늘어났다. 기본적인 개인 가치 각각의 변인 중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후보 선택을 예측하는 변인은 없었지만 1단계에 비해 Nagelkerke R^2 이 .08만큼 증가하였다($p = .02$). 이것은 독립변인이 서로 간의 상관관이 큰 다중공선성을 가지기 때문에 서로를 통제하여 각각이 유의한 효과를 가지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는 유의한 예측력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기본적인 개인 가치 중 안전과 전통, 쾌락주의의 하위차원에서 후보자 선택을 유의확률에 가까운 수준으로 예측함을 확인하였다.

이후 정치적 태도가 후보자 선택을 예측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하기 위해 1단계에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투입하고, 이

표 6. 후보선택을 예측하는 정치적 태도의 회귀계수

	β	S.E	Exp(β)	Nagelkerke R^2
1단계 인구통계학적변인				
성별	-0.01	0.12	0.99	.04*
연령	0.03*	0.01	1.03	
객관적SES	-0.11	0.21	0.90	
주관적SES	0.15*	0.07	1.17	
2단계 정치적 태도				
이념적성향	.44**	.13	1.56	.28***
북한변화요구/북한지원	.41***	.10	1.51	
경제성장/소득분배	.26*	.11	1.30	
질서유지/자유보장	.03	.11	1.03	
경제성장/환경보호	.06	.11	1.06	
체제정당화	.50**	.18	1.65	

주. * $p < .05$, ** $p < .01$, *** $p < .001$

후 정치적 태도 여섯 가지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1단계의 Nagelkerke $R^2 = .04$, Cox & Snell $R^2 = .03$, $p = .04$ 였고, 2단계의 Nagelkerke $R^2 = .28$, Cox & Snell $R^2 = .21$, $p < .001$ 로 설명력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각각의 변인의 영향력이 표 6에 제시되었다.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연령과 주관적 사회경제적지위 후보 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볼 수 있었다. 정치적 태도 중 사회질서유지/개인의 자유보장과 경제성장/환경보호를 제외한 이념적 성향, 북한변화요구/북한지원, 경제성장/소득분배, 체제정당화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 측정된 기본적 개인 가치 열 차원과 정치적 태도 여섯 가지는 각각 전체로서 후보자 선택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태도는 기본적 개인 가치와 후보선택 간을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3에서 다루고자 하는 Schwartz 등 (2010)이 제안한 기본적 개인 가치가 정치적 태도를 통해 후보 선택을 예측하는 경로 모형을 검증하고자 다음의 두 가지 과정을 거쳤다. 첫째, 이분형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해서 기본적 개인 가치와 후보 선택의 관계가 정치적 태도에 의해 설명되는지를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가설 모형, 즉 기본적 개인 가치를 투입한 모형에 정치적 태도를 투입했을 때는 모형의 설명력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반대로 대안 모형, 즉 정치적 태도를 투입한 뒤에 기본적 개인 가치를 투입했을 때는 모형의 설명력이 증가하지 않음을 보이면 된다. 가설 모형에서는 1단계에서 앞서 분석에서 사용된 인구통계학적 변인 네 가지(성별, 연령,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투입한 후 2단계에 열 가지 기본적 개인 가치 변인들을 넣고, 3단계에 정치적 태도 여섯 개를 넣은 후의 Nagelkerke R^2 점수를 계산하였다. 이후의 모든 분석에서 결과 변인인 후보 선택은 1 = 박근혜,

-1 = 문재인으로 코딩하였다. 이 분석에서 2단계의 결과는 Δ Nagelkerke $R^2 = .08$, $p = .02$ 였고, 정치적 태도를 추가한 3단계의 결과는 Δ Nagelkerke $R^2 = .20$, $p < .001$ 로 설명력이 크게 늘어난 결과를 보였다. 한편 반대의 과정 즉, 1단계에 인구통계학적 변인, 2단계에 정치적 태도를 투입하고 3단계에 기본적 개인 가치를 투입한 모형에서는, 2단계에 정치적 태도를 넣은 후의 결과는 Δ Nagelkerke $R^2 = .24$, $p < .001$ 이었으나 3단계로 기본적 개인 가치가 투입되자 Δ Nagelkerke $R^2 = .08$, $p = .27$ 로 Nagelkerke R^2 의 증분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적 태도가 기본적 개인 가치와 후보 선택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 매개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기본적 개인 가치가 정치적 태도를 통해 후보 선택을 예측하는 경로 모형을 검증하였다. 앞서의 회귀분석에서 후보 선택에 유의한 설명력을 가진 이념적 성향(보수 대 진보), 정치적 입장 변인 두 개(북한변화요구/지원, 경제성장/소득분배), 그리고 체제정당화를 매개변인으로 하고 매개변인인 네 가지 정치적 태도를 유의하게 예측함이 밝혀진 여덟 개의 기본적 개인 가치, 즉 안전, 동조, 전통, 박애, 보편주의, 자율, 성취, 권력을 예측변인으로, 이분 범주 변인인 후보 선택을 종속변인으로 한 경로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 후 종속변인으로 이분 범주 변인을 사용할 수 있는 Mplus 7.0을 이용하여 그것의 적합성 검증을 위해 각 경로의 모수 추정치들을 산출하였다. 구성된 경로 모형과 각각의 β 값이 그림 1에 제시되었다. 간명함을 위해 그림 1에는 각 기본적 개인 가치 변인들 간, 그리고 정치적 태도들의 오차변량 간의 상관은 표시하지 않았다. 이 경로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산출한 결과 모형 적합도는 $\chi^2 = 24.80$, $df = 26$, $p = .53$; CFI = 1.00, RMSEA = .00로 나타났다. 홍세희(2000)에 따르면 CFI > .90, RMSEA < .05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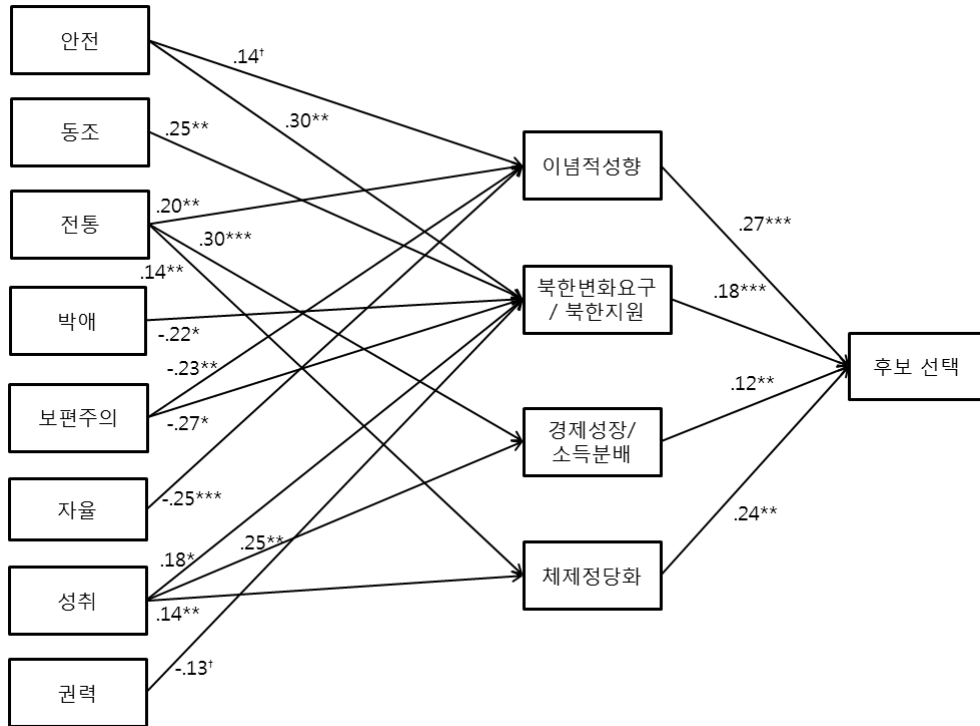


그림 1. 후보 선택의 경로 모형

주. * $p < .05$, ** $p < .01$, *** $p < .001$

이 경로 모형은 자료에 대해 좋은 적합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 개인 가치에서 정치적 태도를 거쳐 후보 선택으로 이어지는 간접효과들을 검증하였다. 경로 모형에 투입된 기본적 개인 가치 차원들 중 박애($\beta = -.04, p = .05$)와 권력($\beta = -.02, p = .08$)을 제외한 여섯 개의 가치 차원들이 정치적 태도를 통해 후보 선택으로 이어지는 간접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ps < .03$. 또한 선행연구에서 보수적 정치 태도와 관련이 깊었던 안전, 동조, 전통, 성취의 간접효과들은 모두 양의 β 값을, 진보적 태도와 관련이 있었던 박애, 보편주의, 자율의 간접효과들은 음의 β 값을 가진 것을 보아 본 모형이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권력의 경우 예상과 반대의 방향(음의 방향)이 나

왔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정확히 어떤 기본적 개인 가치들이 어떤 매개변인을 통해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1000번의 resampling을 실시한 bootstrapping 방법을 통해 모형을 재검증하였다. 이 간접 효과들의 통계치가 표 7에 제시되었다. 이 분석으로 기본적 개인 가치 차원인 안전, 전통, 보편주의, 자율이 보수 대 진보의 이념적 성향을 통해, 안전, 동조, 보편주의가 북한에 대한 태도를 통해, 전통, 성취가 경제성장/소득분배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통해, 마지막으로 전통과 성취가 체제정당화를 통해 후보 선택을 예측하는 간접 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밖에 모형에 있는 다른 경로들 중에 박애와 성취가 북한변화요구/북한지원을 거쳐 후보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로들은 통계적으로

표 7. 각각의 기본적 개인 가치 열 차원이 정치적 태도를 거쳐 후보 선택으로 이어지는 간접효과들의 통계치

기본적 개인 가치	정치적 태도	β	SE	<i>p</i>
안전	이념적성향	0.04	0.02	.09
전통		0.05	0.02	.01
보편주의		-0.06	0.03	.01
자율		-0.07	0.02	.01
안전	북한변화요구/북한지원	0.05	0.02	.02
동조		0.04	0.02	.03
박애		-0.04	-1.90	.06
보편주의		-0.05	0.02	.04
성취		0.03	0.02	.06
권력		-0.02	0.01	.08
전통	경제성장/소득분배	0.04	0.02	.03
성취		0.03	0.02	.05
전통	체제정당화	0.03	0.02	.05
성취		0.03	0.02	.05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유의수준에 근접한 수치를 보였다.

논 의

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리적 특성들이 그들의 정치적 태도를 설명하고, 그 정치적 태도가 정치적 판단을 예측하는 패턴을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치적 태도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 심리적 요인들은 기본적 개인 가치, 도덕성 기반, 성격 특질(성실성, 친화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등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2012년 실시된 대선에서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주요 양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지지자들이 위의 심리적 요인들에서 서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예상과 다르게 각 후보의 지지자들에게서 성격이나 도덕성 기반에 대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기본적 개인 가치 10차원 중 안전, 전통, 성취, 권력의 차원에서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념적 성향, 북한변화요구/지원, 경제성장/소득분배, 경제성장/환경보호, 체제정당화 등의 정치적 태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서는 기본적 개인 가치들(안전, 동조, 전통, 박애, 보편주의, 자율, 자극, 성취, 권력)이 정치적 태도를, 질서유지/자유보장과 경제성장/환경보호를 제외한 정치적 태도가 선거에서의 후보 선택을 예측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경로 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기본적 개인 가치가 정치적 태도를 통해 정치적 판단으로 이어지는 매개 효과들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Schwartz 등의 선행연구(2010)와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로 한국의 맥락에서도 기본적 개인 가치가 정치적 태도에 영향

을 미쳐 후보선택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Schwartz(2010)에서 기본적인 개인 가치의 대부분의 차원들이 정치적 선택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던 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차원에서만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으므로 외국 자료에서 관찰된 결과가 그대로 재확인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경로분석을 통해 밝혀진 결과들 중에 특기할 만한 것들로는, 먼저 정치적 태도를 고려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이념적 성향과 구체적인 정치적 입장, 아울러 체제정당화 등의 변인들을 모두 별도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정치적 태도의 측정들 간에는 상관성이 높지 않았는데¹⁾, 이는 구체적인 정치적 입장들을 1차원적인 이념적 성향으로 축약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반대로 이념적 성향에도 정치적 입장들(적어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것들)로는 포착되지 않는 변인이 존재하며 이 점은 체제정당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간략화된 측정도구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각 구성개념들을 적절히 측정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문항들로 정치적 태도들을 측정하여 각 구성개념들 간의 관계를 더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기본적인 개인 가치가 정치적 태도를 통해 후보 선택에 간접 효과들을 보인 패턴을 살펴보면 대체로 기본적인 개인 가치의 두 상위 차원(자기초월 대 자기고양, 변화에 대한 개방성

대 진보)이 어떤 정치적 태도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예측들에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중 북한변화요구/지원의 정치적 입장은 변화에 대한 개방성 대 보수 가치들(안전, 동조), 자기초월 대 자기고양 가치들(성취, 보편주의) 모두를 매개하였다. 이것은 북한에 대한 태도가 예상과 달리 두 가지 가치 차원을 모두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북한 정권에 대해 변화를 요구하는 것과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은 한 연속선상에서 양 극단에 해당하는 입장이 아니라 서로 양립 가능한 입장일 수 있다. 따라서 이 측정에는 안전과 동조의 측면에서 외부의 군사적 위협의 원인으로 북한을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 동포이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자들로서 북한 주민들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혼재돼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관련 가치들을 고려해서 북한에 대한 입장을 더 세분화하여 측정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선행 연구의 결과와 본 연구 결과의 두드러진 차이점 중 하나는 도덕성 기반과 성격 특질에 있어서 지지 후보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도덕성 기반은 개인의 이념적 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Graham 등에 의해 보고되었다(Graham et al., 2009; Haidt & Graham, 2007). 한국의 표본에서도 이와 같은 점이 확인되었지만(Kim et al., 2012; 이재호와 조근호, 2014)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이념과 도덕성 기반의 관계가 재현되지 않았다. 이러한 불일치는 방법 부분에서 언급된 번역에서의 차이에 의한 결과일 수 있다. 또 다른 고려할 점은 도덕성 기반과 관련해 국내에서 실시된 선행 연구들(Kim et al., 2012; 이재호와 조근호, 2014)이 모두 고학력이면서 비교적 연령대가 낮은 대학생 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학력과 연령대의 범위가 보다 넓은 본 연구의 모집단에서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판단이나 이념적 성향에 대해 덜 확신했을 가능성이 있다(Sidanius & Duffy, 1988). 또한 본 연구는 보

1) 이념적 성향과 네 가지 정치적 입장들, 체제정당화 간의 상관성은 가장 높은 것이 .53(소득분배/경제성장과 환경보호/경제성장)이었고 절반 정도는 유의미하지 않은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이념적 성향이 정치적 입장이나 체제정당화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회귀분석의 결과, 북한지원/변화요구만이 $\beta = .23$, $p < .001$ 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런 결과들을 보았을 때 이념적 성향은 단순히 정치적 입장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별도의 변인으로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와 진보 대선 후보로 대표되는 박근혜와 문재인 후보의 지지자들을 비교 대상으로 하였는데, 박근혜 후보의 지지자를 보수로, 문재인 후보의 지지자를 진보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이념적 성향과 도덕적 기반의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을 수 있다. 이 결과는 정치적 태도를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적인 틀만으로 보는 것이 후보 선택과 같은 행동적 변인과 관련이 있는 심리적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에서는 부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개인의 여러 가지 심리적 특성이 정치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정치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탐색한 연구라는 점에 있다. 정치 성향에 따른 차이, 즉 보수와 진보 집단의 심리적 특성이나 사회지각 혹은 판단 차이에 대한 연구(양윤과 홍수정, 2010; 이준기와 한미애, 2012; 이재호와 조궁호, 2014; 홍기원과 이종택, 2010)나 심리적 특성과 특정한 정치적 인식 혹은 판단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권인석, 1991; 김도환, 황상민, 최윤식, 2011; 김혜숙, 1994; 이진안, 최승혁, 허태균, 2012)는 있었지만 심리적 특성들이 정치적 태도를 통해 선거에서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검증한 논문은 많지 않았다. 특히 본 연구는 심리적 특성들과 정치적 태도, 선거에서의 판단 간의 관계를 살펴본 외국 연구들(Caprara et al., 2006; Schwartz et al., 2010)을 모델로 삼되 한국에서 유사한 결과가 나오는지 검증함과 아울러 최근에 정치적 사고와 관련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도덕적 기반(Haidt & Joseph, 2004)의 차원들의 영향을 다른 심리적 특성들의 영향과 함께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실증적 공헌을 찾을 수 있다. 앞서 요약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외국의 유사한 선행 연구에서의 결과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특히 도덕적 기반과 성격 특질에서 후보 지지자들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점). 이런 결과는 정치적 사고와 행동에 관한 외국의 연구 결과들을 국내 맥락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며 후속 연구를 통해 문화 간 차이의 원인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겠다.

둘째, 많은 국내의 연구들이 정치적 태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 본인이 진보적 혹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만을 사용한 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그뿐 아니라 한국의 맥락에서 진보와 보수가 대립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주제들에 대한 입장을 통해서도 정치적 태도를 측정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진보와 보수 성향의 단일 척도만 예측변인으로 분석했을 때보다 정치적 입장 질문들을 함께 예측변인으로 두고 분석했을 때 후보 선택을 더 잘 예측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이념적 성향과 함께 구체적인 정치적 입장들을 함께 측정하는 것이 정치적 판단을 이끌어내는 이념적 위치를 측정하는 데 있어 더 엄밀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정치적 특수성을 고려하였다. 한국만의 정치적 특성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바로 북한의 존재이다. 한국은 아직 전쟁의 가능성이 있는 휴전상태인 분단국가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북한과의 이러한 군사적 대치 결과 한국 내 정치에 있어서 북한에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정치적 태도의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 대한 태도를 정치적 태도를 반영하는 한 변인으로 추가하여 측정하였고, 이것이 이념적 성향이나 다른 정치적 입장들보다 후보 선택을 더 잘 예측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가보안법과 같은 안보 이슈나 북한에 대한 생각이 한국의 이념적 성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많은 정치학 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결과이지만(강원택, 2004; 김무경과 이갑윤, 2005; 윤성이, 2006; 진영재와 김민욱, 2007),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과 연결된 심리학적 함의를 제안할 수 있다. 외국의 맥락과

는 달리 후보 또는 정당을 선택하는 데에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기본적 개인 가치나 정치적 태도 외의 다른 심리적 특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개선점 및 결론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측정에 있어서 전체 설문지의 문항 수를 감안하여 부득이 간략화한 척도들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결과 측정의 신뢰도가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기본적 개인 가치의 경우에는 WVS에서 사용한 척도, 즉 각 차원당 하나의 문항만을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신뢰도를 살펴볼 수 없었고, 이 축약판 척도의 타당성도 별도로 검증 과정을 거치지 못하였다. 정치적 입장 또한 한 개씩의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체제정당화의 경우에도 원래의 척도에서 네 개의 문항만을 뽑아서 사용하였다. 성격 특질은 비록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지만 역시 그 문항이 많지 않았다. 이탈리아인들을 대상으로 한 Schwartz 등(2010)에서와는 달리 기본적 개인 가치의 열 차원 중에 정치적 태도나 후보 선택을 예측하지 않는 가치 차원(쾌락주의)이 있었고 후보선택을 예측하지 못하는 정치적 입장(질서유지/자유보장, 경제성장/환경보호)이 있었는데, 측정에서의 문제가 이러한 결과의 한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측정에 있어서의 신뢰도의 문제 때문에 결과의 해석에 애매함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인구통계학적 질문에서도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함에 있어 가계의 월 소득만을 고려하였다는 점도 이 연구의 한계점 중 하나일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타당화를 거친 보다 정밀한 척도들을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 나타난 변인들 간 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두 번째 한계는 본 연구가 오직 설문조사를 통해서만 실시된 상관 연구라는 점에 있다. 회귀분석과 경로 모형 분석을 통해 인과관계를 추

정하였으나 이러한 결과를 확신하기 위해서 실험연구 혹은 선거 전/후로 종단 연구 등을 통해 명확한 인과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치적 태도를 측정하는 데에 있어 북한변화요구/북한지원, 경제성장/소득분배, 질서유지/자유보장, 경제성장/환경보호의 네 개의 차원만을 사용하였는데 선거에서의 판단을 더 잘 예측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정치/사회 관련 태도들이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기본적 개인 가치가 정치적 태도를 예측하는 예측력이 선행연구(Schwartz et al, 2010)에 비해 낮다는 점이 있다. 또한 Schwartz 등의 연구에서는 개인적 가치가 여덟 가지 핵심적 정치 가치 변인 모두에게 예측력을 가졌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입장 중 세 가지의 변인에게만 유의한 예측력을 가졌고 그 중 두 가지 변인만이 후보 선택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이는 한국인들이 가진 가치 차원이 서양인들과 차이를 갖기 때문이거나 가치관보다 정치적 태도나 후보 선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의 맥락에서 다른 어떤 심리적 특성(예를 들어 불확실성 회피 경향이나 권력과의 거리; Hofstede, 1984)이 정치적 태도나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판단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들 중에 사회적 요인들이나 상황 요인들은 고려하지 않고 유권자 본인의 개인적 특성들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그 이유는 지나치게 모형이 복잡해지는 것을 우려해서이기도 하였지만, 가치관이나 성격과 같은 개인의 기본적인 특성들이 어떻게 정치적 판단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였기 때문이기도 했다. 유권자들이 양측 후보, 그리고 그들의 지지자 집단을 어떻게 지각하는지, 자신에 대한 지각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도 본 연구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다루지 않았으나 저자들은 현재 그 질문에 관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맥락에서 사람들의 정치적 태도와 판단을 이해할 수 있는 심리적 특성들을 밝히기 위해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정치적 판단에 관련한 심리학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 추후 정치 심리 연구에서 가능한 방향과 유의해야 할 점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발견은 앞으로 다양한 심리적 특성과 정치 지각 혹은 정치 판단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원택 (2004). 남남갈등의 이념적 특성에 대한 경험적 분석. *남남갈등 진단 및 해소방안*, 0(0), 55-100.
- 권인석 (1991). 심리적 변수에 의한 정당선호의 예측. *한국정치학회보*, 25(2), 853-876.
- 김도환, 황상민, 최윤식 (2011). 정치 현상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유형과 심리적 기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183-208.
- 김무경, 이갑윤 (2005). 한국인의 이념정향과 갈등. *사회과학연구*, 13(2), 6-32.
- 김연신, 최한나 (2009). Schwartz의 보편적 가치 이론의 적용 타당성 연구: 한국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1), 1-16.
- 김주찬, 윤성이 (2003).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이념성향이 투표에 미친 영향. 21세기 정치학회보, 13(2), 1-16.
- 김지현, 김복환, 하문선 (2011). 간편형 한국어 BFI(Big Five Inventory) 타당화 연구. *인간이해*, 32(1), 47-65.
- 김혜숙 (1994).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의식과 행동: 선거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1), 54-68.
- 서지영, 정영숙 (2012). 연령에 따른 가치구조의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2), 21 - 44.
- 신현희 (2011). 자기초월가치와 환경보존행동 및 친환경행위의도와 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 윤, 홍수정 (2010). 정치관심도, 정치이념성향, 정보탐색목표가 정치정보 탐색에 미치는 영향: 여대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6(3), 289-310.
- 윤성이 (2006).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실체와 변화. *국가전략*, 12(4), 163-182.
- 윤성이, 이민규 (2011). 한국사회 이념측정의 재구성. *의정연구*, 17(3), 63 - 82.
- 이내영, 정한울 (2013). 세대균열의 구성 요소: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 *의정연구*, 40, 37-83.
- 이준기, 한미애 (2012). 개인의 정치성향이 뉴스 댓글에 대한 신뢰성과 사회적 영향력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전자거래학회지*, 17(1), 173-187.
- 이재호, 조궁호 (2014). 정치성향에 따른 도덕 판단기준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1), 1-26.
- 이진안, 최승혁, 허태균 (2012). 정치적 판단에서 심리적 요인의 역할: 변화가능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2), 69-86.
- 이현지 (2003). 정치적 이념의 형성과 가치변화: 16대 대선에 나타난 “비동시성의 동시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연구*, 7(0), 125-149.
- 정은경, 손영우 (2011). 진보와 보수의 도덕적 가치 판단의 차이: 간통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3), 727-741.
- 정은경, 정혜승, 손영우 (2011). 진보와 보수의 도덕적 가치 판단의 차이: 용산재개발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4), 93-105.
- 진영재, 김민욱 (2007). 한국인의 이념성향 인식과 후보자 및 정당 지지 행태와의 상관관계: 16대 대통령선거와 17대 국회의원선거 비교 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23(4), 65-98.

- 최정원, 이영호 (2014). 개정된 가치묘사질문지 (PVQ-R) 한국판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3(3), 553 - 593.
- 특별취재팀 (2012, 04, 05). [경향신문 · 경실련 총선 공약 검증] (9) 대북정책.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4052224005&code=910110. 에서 2014. 12, 15 자료 얻음.
- 홍기원, 이종택 (2010). 한국 성인의 이념적 지형과 심리적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2), 1-25.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dler, N. E., Epel, E. S., Castellazzo, G., & Ickovics, J. R. (2000). Relationship of subjective and objective social status with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functioning: preliminary data in healthy white women. *Health Psychology*, 19(6), 586-592. doi:10.1037/0278-6133.19.6.586
- Adorno, T. W., Frenkel-Brunswick, E., Levinson, D. J., & Sanford, R. N. (1950).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New York: Harper and Row.
- Altemeyer, B. (1981). *Right wing authoritarianism*. Winnipeg, Canada: University of Manitoba Press.
- Barbaranelli, C., Caprara, G. V., Vecchione, M., & Fraley, C. R. (2007). Voters' personality traits in presidential election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2(7), 1199-1208. doi:10.1016/j.paid.2006.09.029
- Barnea, M. F., & Schwartz, S. H. (1998). Values and voting. *Political Psychology*, 19(1), 17-40. doi:10.1111/0162-895X.00090
- Blau, F. D., & Kahn, L. M. (1996). Wage structure and gender earnings differential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Economica*, 63, 29-62. doi:10.2307/2554808
- Caprara, G. V., Schwartz, S., Capanna, C., Vecchione, M., & Barbaranelli, C. (2006). Personality and politics: Values, traits, and political choice. *Political Psychology*, 27(1), 1-28. doi:10.1111/j.1467-9221.2006.00457.x
- Caprara, G. V., Vecchione, M., & Schwartz, S. H. (2009). Mediation role of values in linking personality traits to political orientation.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2), 82-94. doi:10.1111/j.1467-839X.2009.01274.x
- Caprara, G. V., & Zimbardo, P. G. (2004). Personalizing politics: A congruency model of political preference. *American Psychologist*, 59(7), 581-594. doi:10.1037/0003-066X.59.7.581
- Duckitt, J., & Sibley, C. G. (2010). Personality, ideology, prejudice, and politics: A dual-process motivational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78(6), 1861-1894. doi:10.1111/j.1467-6494.2010.00672.x
- Feather, N. T., & McKee, I. R. (2012). Values, Right-Wing Authoritarianism,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ambivalent attitudes toward women: Values and ambivalent sexism.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2(10), 2479-2504. <http://doi.org/10.1111/j.1559-1816.2012.00950.x>
- Feldman, S., & Johnston, C. (2014). Understanding the determinants of political ideology: Implications of structural complexity. *Political Psychology*, 35(3), 337-358. doi:10.1111/pops.12055
- Froese, P., & Bader, C. (2008). Unraveling religious worldviews: The relationship between images of god and political ideology in a cross-cultural analysis. *The Sociological Quarterly*, 49(4), 689-718. doi:10.1111/j.1533-8525.2008.00132.x
- Graham, J., Haidt, J., & Nosek, B. A. (2009). Liberals and conservatives rely on different sets of moral found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5), 1029-1046. doi:10.1037/a0015141

- Graham, J., Nosek, B. A., Haidt, J., Iyer, R., Koleva, S., & Ditto, P. H. (2011). Mapping the moral domai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1*(2), 366-385. doi:10.1037/a0021847
- Greeley, A. M. (1988). Evidence that a maternal image of god correlates with liberal politics.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72*, 150-154.
- Haidt, J. (2001). The emotional dog and its rational tail: A social intuitionist approach to moral judgment. *Psychological Review, 108*(4), 814-834. doi:10.1037/0033-295X.108.4.814
- Haidt, J., Graham, J., & Joseph, C. (2009). Above and below left-right: Ideological narratives and moral foundations. *Psychological Inquiry, 20*(2-3), 110-119. doi:10.1080/10478400903028573
- Hofstede, G. (1984).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Vol. 5). Sage.
- John, O. P., Naumann, L. P., & Soto, C. J. (2008). Paradigm shift to the integrative Big-Five trait taxonomy: History, measurement, and conceptual issues. In O. P. John, R. W. Robins, & L. A. Pervin (Eds.),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pp. 114-158). New York, NY: Guilford Press.
- John, O. P., & Srivastava, S. (1999). The Big-Five trait taxonomy: History, measurement,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In L. A. Pervin & O. P. John (Eds.),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Vol. 2, pp. 102-138). New York: Guilford Press.
- Jost, J. T. (2006). The end of the end of ideology. *American Psychologist, 61*(7), 651-670. doi:10.1037/0003-066X.61.7.651
- Jost, J. T., Banaji, M. R., & Nosek, B. A. (2004). A decade of system justification theory: Accumulated evidence of conscious and unconscious bolstering of the status quo. *Political Psychology, 25*(6), 881-919. doi:10.1111/j.1467-9221.2004.00402.x
- Jost, J. T., Glaser, J., Kruglanski, A. W., & Sulloway, F. J. (2003). Political conservatism as motivated social cognition. *Psychological Bulletin, 129*(3), 339-375. doi:10.1037/0033-2909.129.3.339.
- Jost, J. T., Nosek, B. A., & Gosling, S. D. (2008). Ideology: Its resurgence in social, personality, and political psychology.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3*(2), 126-136. doi:10.1111/j.1745-6916.2008.00070.x
- Kay, A. C., & Jost, J. T. (2003). Complementary justice: Effects of "Poor but Happy" and "Poor but Honest" stereotype exemplars on system justification and implicit activation of the justice mo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5), 823-837. doi:10.1037/0022-3514.85.5.823
- Kim, K. R., Kang, J. S., & Yun, S. (2012). Moral intuitions and political orientation: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Psychological Reports, 111*(1), 173-185. doi:10.2466/17.09.21.PR0.111.4.173-185
- Kraus, M. W., Piff, P. K., Mendoza-Denton, R., Rheinschmidt, M. L., & Keltner, D. (2012). Social class, solipsism, and contextualism: How the rich are different from the poor. *Psychological Review, 119*(3), 546-572. doi:10.1037/a0028756
- Krosnick, J. A., Visser, P. S., & Harder, J. (2010). The psychological underpinnings of political behavior.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doi:10.1002/9780470561119.socpsy002034
- Kruglanski, A. W., & Webster, D. M. (1996). Motivated closing of the mind: "Seizing" and "freezing." *Psychological Review, 103*(2), 263-283. doi:10.1037/0033-295X.103.2.263
- MacKinnon, D. P., Lockwood, C. M., Hoffman, J. M. West, S. G., & Sheets, V. (2002). A

- comparison of methods to test mediation and other intervening variable effects. *Psychological Methods*, 7(1), 83-104. doi:10.1037//1082-989X.7.1.83
- McCrae, R. R., & John, O. P. (1992). An introduction to the five-factor model and its applic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60, 175-216. doi:10.1111/j.1467-6494.1992.tb00970.x
- Piurko, Y., Schwartz, S. H., & Davidov, E. (2011). Basic personal values and the meaning of left-right political orientations in 20 Countries: Basic values and meaning of left-right. *Political Psychology*, 32(4), 537-561. doi:10.1111/j.1467-9221.2011.00828.x
- Rokeach, M. (1960). *The open and closed mind*. New York: Basic.
- Rokeach, M. (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The Free Press.
- Schoen, H., & Schumann, S. (2007). Personality traits, partisan attitudes, and voting behavior. Evidence from Germany. *Political Psychology*, 28(4), 471 - 498. doi:10.1111/j.1467-9221.2007.00582.x
- Schwartz, S. H. (1992). Universal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Theoretical advances and empirical tests in 20 countrie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5(1), 1-65. doi: 10.1016/S0065-2601(08)60281-6
- Schwartz, S. H. (1994). Are there universal aspects in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human values? *Journal of Social Issues*, 50(4), 19-45. doi:10.1111/j.1540-4560.1994.tb01196.x
- Schwartz, S. H. (2006). A theory of cultural value orientations: Explication and applications. *Comparative Sociology*, 5(2), 137-182. doi:10.1163/156913306778667357
- Schwartz, S. H., Caprara, G. V., & Vecchione, M. (2010). Basic personal values, core political values, and voting: A longitudinal analysis. *Political Psychology*, 31(3), 421-452. doi:10.1111/j.1467-9221.2010.00764.x
- Schwartz, S. H., Cieciuch, J., Vecchione, M., Davidov, E., Fischer, R., Beierlein, C., Ramos, A., Verkasalo, M., Lönnqvist, J. E., Demirutku, K., Dirilen-Gumus, O., & Konty, M. (2012). Refining the theory of basic individual valu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3(4), 663-688. doi:10.1037/a0029393
- Schwartz, S. H., Melech, G., Lehmann, A., Burgess, S., Harris, M., & Owens, V. (2001). Extending the cross-cultural validity of the Theory of Basic Human Values with a different method of measurement.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2(5), 519-542. doi:10.1177/0022022101032005001
- Sidanius, J., & Duffy, G. (1988). The duality of attitude structure: a test of Kerlinger's critical referents theory within samples of Swedish and American youth. *Political Psychology*, 9(4), 649-670. doi:10.2307/3791532
- Sidanius, J., & Pratto, F. (1999). *Social dominance: An intergroup theory of social hierarchy and oppression*.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doi:10.1017/CBO9781139175043
- Vecchione, M., Schoen, H., Castro, J. L. G., Cieciuch, J., Pavlopoulos, V., & Caprara, G. V. (2011). Personality correlates of party preference: The Big Five in five big European countri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1(6), 737-742. doi:10.1016/j.paid.2011.06.015
- World Values Survey Association (2005-2008). World Values Survey Wave 5 2005-2008 Official aggregate v.20140429. Madrid SPAIN: Asep/JDS. <http://www.worldvaluessurvey.org>에서 2014, 12, 15 자료 얻음.
- 1 차원고집수 : 2015. 09 25.
수정원고집수 : 2015. 11. 09.
최종게재결정 : 2015. 11. 13.

Basic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political attitudes, and candidate choice: A path model analysis

Hyeon Jeong Kim

Yeongock Park

Sang Hee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olitical attitudes, typically discussed in terms of liberal and conservative, are an important factor in candidate choice in elections. Recently, research has been documenting that basic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can influence formation of political attitudes. In this study, we hypothesized and tested a path model in which three sets of intraindividual psychological factors of basic personal values, moral foundations, and personality traits (conscientiousness, agreeableness, and openness to experience) can impact political attitudes, and in turn, candidate choice in an election. We measured and compare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supporters of conservative and liberal candidates in the 18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We recruited 300 participants (152 female) employing quota sampling for regions, who participated via the internet before the 2012 election. Various facets of political attitudes were measured, including the unidimensional construct of ideological orientation, stances on social issues specific to the Korean political context, and degrees of system justific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supporters of the two major presidential candidates differed on such personal value dimensions as power, security, achievement, and tradition, as well as political attitudes of ideological orientation, positions on North Korea, the economy, the environment, and system justification. Finally, mediation effects from basic personal values to political judgment through political attitudes were identified. We were able to demonstrate both universality and specificity i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involved in political judgments.

Keywords : *political attitude, candidate choic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election, basic personal values*